



단풍철쭉

- ▶ 과명 : 진달래과
- ▶ 학명 : *Enkianthus perulatus*
- ▶ 영명 : White Enkianthus
- ▶ 한명 : 滿天星
- ▶ 일명 : とうだんつつず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회양목이나 쥐똥나무가 서민들의 생활타리용이라면 단풍철쭉이나 홍가시나무, 만병초는 귀족들의 생활타리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식재범위가 넓은 단풍철쭉은 많은 가지가 층을 만들어 자라고 줄기는 똑바로 올라가는 귀티(?)를 품겨 고급정원의 독립수 또는 수벽(樹壁)으로 식재되고 있다. 수형도 우아하지만 5월에 피는 순백색의 꽃은 청량한 청결감을 주고 특히 가을의 진분홍색 단풍은 관상가치가 일품이어서 「단풍철쭉」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순백색의 통꽃은 마치 등불과 같이 초롱초롱 매달려 일명「등대철쭉」으로 불리기도 한다.



▲ 단풍철쭉

1. 생태적 특성

한동안 단풍철쭉은 일본이 원산으로 도입된 낙엽활엽 작은키 나무로 정원에 관상용으로 식재하여 왔으나 최근에 지리산 활엽수림의 계곡부에서 발견되어 우리나라 자생종임이 밝혀졌으며 높이 2~5m까지 자란다. 양지와 음지에서 모두 잘 자라며 추위에도 잘 견디고 수분이 적당하고 부식질이 많은 비옥한 토양에서 생육이 왕성하다. 해안지방에서도 잘 자라고 대기오염에 대한 적응



력도 강하며 맹아력 역시 강하여 아름다운 수형을 만들 수 있으며 이식도 용이하다.

2. 형태적 특성

줄기에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자라 층을 만들고 수피는 황갈색이고 광택이 있으며 잎은 어긋나고 도란형(倒卵形)으로 길이 2~4cm, 넓이 1~2cm로 끝이 뾰족하다. 꽃은 잎과 함께 또는 먼저 피는데 3~10송이가 달려 늘어서며 통꽃으로 크기가 0.7cm정도이며 5월에 백색으로 피고 꽃자루가 길다. 열매는 길이 0.8cm이며 긴타원형이며 삭과(?果)로 과경과 함께 위로 직립하여 가을에 익는 것이 다른 종과의 차이이다.

그 외에도 일본이 원산인 *Enkianthus*속 종류들이 도입되어 식재되고 있다. 등대꽃이라 부르는 *Enkianthus campanulatus*가 많이 식재되고 있으며 그 외 몇 종이 드물게 식재되고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5월에 피는 순백색의 꽃은 등불모양으로 피어 눈길을 끌며 가을에 가을에 단풍이 진분홍색으로 아름답



▲ 단풍철쭉

다윈서 단풍철쭉으로 불리운다. 자그만 꽃모양이 특이하며 가지도 잔잔하고 아름다워 차분한 인상을 준다. 특히 가을의 단풍은 일품으로 관상수로서 용도가 다양한 수종이다. 맹아력이 강하고 적갈색의 아름다운 가지가 똑바로 올라와 생울타리를 만들면 대단히 아름답고 고상하며 귀족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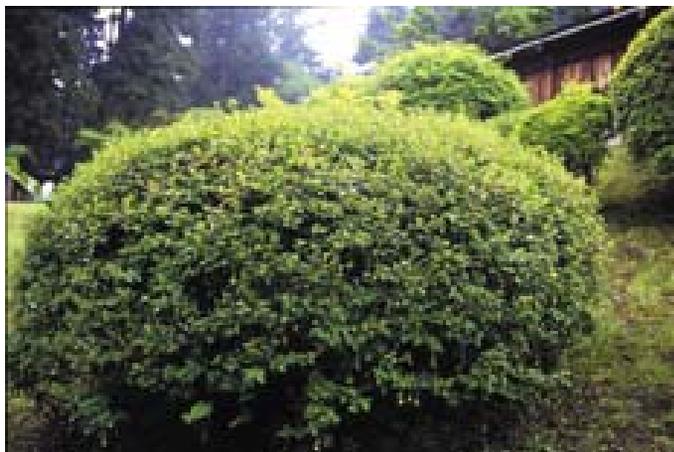
단풍철쭉은 추위와 대기오염에 강하여 대도시 도로의 분리대 또는 빌딩의 화단, 공원수, 가정정원에 식재할만한 고급관상수이다. 이나무는 개발 가치가 높은 새로운 인기관상수로 개발 보급할 가치가 큰 조경수로 판단된다.

4. 번식법

번식은 여름철에 그해에 자란 가지를 잘라 녹지삽목을 하면 뿌리가 잘 내리며 한꺼번에 많은 묘목을 생산코자 하면 가을에 익는 종자를 채취하여 특수 시설된 온실 내에서 이끼위에 파종하면 증식할 수 있다.

5. 그 밖의 용도

여름이 지나면 전정을 하게 되는데 잘려진 가지와 잎이 관상 가치가 높아 꽃꽂이 소재로 활용하면 아름답다. 



▲ 단풍철쭉